

고양이 치아 관련 문제

2011년 9월, 저는 고양이 치아 관련 매우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후, 제 고양이 율슨의 잇몸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서 동물병원을 찾았고, 매우 많은 비용이 소요된 후, 여러분과 고양이 치아에 관하여 지식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제가 동물병원 의사가 아니라 그냥 평범함 고양이 키우는 사람이라는 점을 전제로 제 글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물병원에서 제 고양이는 여러차례의 x-ray 를 촬영하고, 저는 의사선생님과 수차례의 대화를 나누고, 결국 치아 수술 (스케일링 + 발치 등) 후의 후속 치료를 받고, 이 모든 과정으로 인하여 지갑이 매우 가벼워진 후 깨달은 바가 많습니다. 저는 우선 제 고양이가 이빨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큰 고통속에서 살았는지조차도 몰랐습니다 (제 고양이 율슨은 결국 이빨 4 개를 뽑아야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1. 눈에 보이지 않은 병을 치료하기는 불가능하다 (즉, 고양이 이빨 건강 상태는 그냥 맨눈으로는 정확한 상태를 관찰하기 힘들)
2. 고양이에게 칫솔질은 필수 사항입니다.
3. 마취 없이 하는 치아 치료는 절대 금물입니다.

우선 우리 고양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월슨은 4.5 살 정도 되었을때 우리가 입양한 고양이입니다. 저는 월슨이 입양하기 전에 어떤 건강상태였는지, 치아 관리를 어떻게 해 왔는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이다가, 입양 후 처음으로 월슨을 데리고 동물병원에 갔을때 월슨의 잇몸 염증 및 상태 전반에 대해서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고양이 마취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였습니다. 누가 제 머리에 총을 들이대거나 정말 어쩔 수 없이 마취를 해야하는 경우를 빼고는 고양이를 마취시키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리석게도 저는 마취에 대해서만 신경을 쓴 나머지, 제 고양이 이빨 건강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고양이에게 나쁜 치아가 얼마나 건강에 안 좋은지 알았으면 어렸을때부터 치아 관리를 꾸준히 했을텐데요.

게다가 저는 지난 경험을 미루어, 동물병원 의사들이 하는 말을 일단 불신하고 보는 안 좋은 버릇이 생겼습니다. 이러다 보니 동물병원 의사 선생이 꾸준히 정기적으로 고양이도 치아 관리를 받아야한다는 말도 흘러들었습니다.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저 역시 평범한 고양이 키우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고,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상황일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제 사정부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수년간 고양이가 육식동물이라는 점을 무시하고, 동물병원에서 추천하고, 애완동물 전문회사에서 만든 사료라면 다 괜찮다고 맹신한 나머지, 탄수화물이 가득한 건조 사료를 고양이에게 먹여도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다른 고양이들도 건조 사료 먹고 다들 잘 사는 것 같은데, 고양이에게 특별한 건강 이상 징후가 없으면 건조사료가 문제 없을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고양이가 심각한 염증성 장 질환을 겪고 나서야 저는

고양이 음식 및 영양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다보니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저는 애완동물 회사 및 동물병원들이 하는 말을 일단 불신하고 보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제 고양이의 염증성 장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십차례, 아주 긴 시간 동안 동물병원에서 추천하는 여러가지의 사료를 먹여봤지만, 결국 제 고양이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고, 동물병원 선생이 하는 중요한 충고 (고양이 치아 관리 관련)도 모두 희의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 9월 제 고양이 월슨의 치아 대(大) 수술 후에야 고양이 치아 관리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고양이 치아 관리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 변명은 여기서 그만하고요...

고양이 치아 관련 꼭 알아야 할 3가지

1. 눈에 보이지 않은 병을 치료하기는 불가능하다 (즉, 고양이 이빨 건강 상태는 그냥 맨눈으로는 정확한 상태를 관찰하기 힘들)



처음부터 힘이 빠지는 이야기 같죠? 본인도 동물병원 의사도 고양이 입안 상태를 관찰한 후, 상태가 괜찮은 편이라고 말하면 별 치료 및 관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고양이 대부분이 모두 치아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습니다. 미국 동물병원 의사 협회 Thomas Chamberlain 박사가 이 작성한 상세한 보고서에 따르면, 2 살 정도된 고양이의 85%는 이미 치아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85% 입니다.

즉 고양이의 15%만이 비교적 건강한 치아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지요.

본인의 고양이가 이 15%에 해당하면 행복한 일이겠지만, 15%보다는 85%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말씀 안 드려도 아실겁니다. 대부분의 고양이들이 건조사료를 먹는 점을 감안하면, 건조사료가 치아 건강 관리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도 아실 수 있겠지요.

물론 이것은 단순한 숫자로, 모든 것을 다 숫자로만 설명할 수는 없지만, 통계학적인 수치를 그냥 무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고양이들이 치아 건강 상태가 나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긴 시간 동안 연구한 결과, 좋은 사료를 먹는 고양이도 형편없는 사료를 먹는 고양이들도 대부분 다 치아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도저히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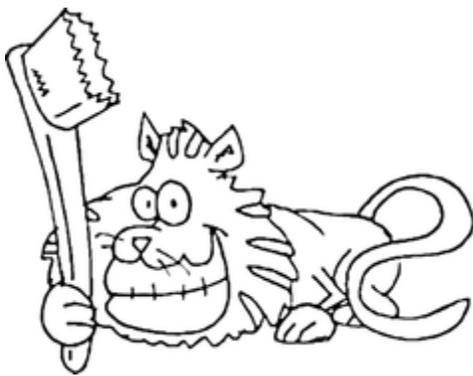
다만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고양이를 마취시켜야만 고양이가 실제로 얼마나 심각한

상태의 치아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양이가 마취된 상태에서만 잇몸 내부의 상황을 의사선생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가 마취된 상태가 되어야 제대로 된 X-ray 을 찍을 수 있습니다. 고양이가 마취가 된 상태가 되어야만 동물병원 전문의가 고양이 잇몸 밑 (여기에 치석이 대부분을 쌓여 결국 잇몸, 치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침)을 깨끗하게 닦을 수 있습니다.

저도 물론 마취없이 이 모든 치료가 가능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현실은 고양이가 마취된 상태야지만 전문의가 제대로 고양이 치아 진단은 하고 문제점을 찾을 수 있으며 치료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고양이를 고통에서 해방시키고 건강한 입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표면적인 상태만 봐서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2. 고양이에게 칫솔질은 필수 사항입니다



저도 이것을 읽는 여러분의 심정이 이해합니다. 고양이에게 칫솔질이 좋다는 것은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실제로 실천하기는 정말 힘들죠?

저는 처음에 고양이도 칫솔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때 미친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미친 것을 떠나서 도대체 누가 고양이 칫솔질을 해줄 만큼 시간적인
여유가 있냐고 따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대해야하는 대상은 고양이입니다. 고양이는 뭔가를 강제로 하는 것을
무척이나 싫어하는 동물입니다. 제가 어떻게 고양이에게 할퀴를 안 당하고 고양이에게
강제로 칫솔질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도 성격이 좋은 고양이랑 살아봤지만,
순순히 칫솔질에 응할 고양이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도 몇년전에 고양이 칫솔을 구입하여 3 분동안 열심히 고양이 칫솔질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도 여러번 다시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에게 고양이 칫솔질은 뭔가가 부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야생에서 사는 고양이도 칫솔을 꺼내서 이빨을 안 닦는데, 도대체 왜 집에 사는 우리
고양이들이 칫솔질이 필요한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 고양이에게 홈메이드 생식만을 먹이고 있지만, 저 역시도 예전에는 고양이
사료를 집에서 만드는 것 자체를 미친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홈메이드
사료외의 시판 사료를 고양이에게 먹일 생각을 못할만큼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고양이
치아 관련 생각도 이와 같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이렇게 위안을 했습니다. "뭐 고양이가 칫솔질을 거부하고 치아 문제가 생기면
그냥 동물병원에 데려가서 치료 및 스케일링 시키면 다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Thomas Chamberlain 박사님의 말을 인용하자면”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은 보통 동물병원 전문이가 1년에 1~2 차례 하는 치아 치료를 너무 맹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집에서 하는 치아 관리가 최우선이면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동물병원에서 치아 치료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생기는 치석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기 전까지는, 치석 및 치아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집에서 하는 치아 관리입니다(사람도 마찬가지이겠지만요). 물론 칫솔질 말고도 고양이 치아 건강 관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여러가지 있습니다. 생고기 덩어리 먹이기, 건조사료 그만 먹이기 (건조사료가 탄수화물이 다량 있는 관계로 이빨에 들러붙어서 치석을 생성하는 주요한 원인임) 등....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고양이 치아 건강 지키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도 물론 위의 행동만으로도 고양이가 건강한 치아를 유지했으면 하지만, 현실이 그러지를 못합니다.

우리 고양이 월슨이 치아 수술을 위해서 마취한 상태에서 의사선생이 진찰한 결과, 의사가 잇몸 중 한 부분에 자극을 줄때 월슨이 '반사적으로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즉, 그 특정 잇몸 부위가 이미 너무 악화가 된 나머지, 마취가 된 상태에서도 그 부분에 자극을 줄때 반사적으로 고통스러운 반응을 보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고양이가 이 지경이 될때까지 방치하시면 안됩니다.

고양이들은 유난히 다른 동물에 비해서 고통을 잘 숨기고, 참습니다. 하지만 아픈것을 잘 숨기고 참는다고, 누가 아프기를 원하겠습니까? 아무리 아픈것을 잘 숨기고 참는 사람이라도,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잘 참는 것 = 별로 아프지 않을 것’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양이는 입안의 고통을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수용하고 살아갈뿐입니다. 티가 안 나더라도 고양이가 아파하고 있으면 치료해줘야 합니다. 치료 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고양이 이빨을 꾸준히 정기적으로 칫솔질 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제 홈페이지의 ‘자주 물어보는 질문 (FAQ)’ 페이지

(<http://www.catnutrition.org/faq.html>)에서도 언급했지만, Cornell 대학은 4 주에 걸쳐서 고양이를 칫솔질에 적응하도록 가르치는 방법을 내용으로 하는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http://www.partnersah.vet.cornell.edu/pet-owners/cat-teeth/entire-video> 에서 시청 가능).

저는 2011 년이 되서야 고양이 칫솔질을 정기적으로 해주기 시작했고, 제가 겁냈던 것보다는 훨씬 수월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Cornell 대학 동영상에서 가르친대로 따라했는데, 제가 추가하고 싶은 비법은 고양이가 잠들고 있을때 칫솔질을 시도하면 훨씬 더 수월하다는 점입니다. 제 고양이 2 마리는 비교적 성격이 좋은 편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칫솔질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고양이는 다 다르니, 칫솔질에 대하여 반응하는 정도도 다를 것입니다.

고양이 이빨 중 안쪽 부분을 칫솔질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빨의 바깥쪽만 집중해서 청소해주시고, 위 아래 그리고 앞쪽 이빨까지 모두 칫솔질해주세요. 저희는 해산물 맛이 나는 고양이용 치약을 사용하는데, 우리 고양이들이 매우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칫솔질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유념해야 할 점 4 가지:

- 성인용 고양이일 경우, 고양이가 동물병원 전문의로부터 마취된 상태에서 전반적인 치아 검진을 받은 후에 칫솔질을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안의 상태가 안 좋은 상황이라면, 칫솔질이 오히려 고양이의 이미 안 좋은 잇몸을 자극하여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고양이는 '칫솔질=고통' 으로 인식하게 되어서 칫솔질 시도 할때마다 필사적으로 반항할 것입니다. 물론 결국 고양이 주인은 정기적인 고양이 칫솔질을 자연스럽게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겠지요. 동물병원 전문의에게 고양이를 데려가서, 고양이를 마취시킨 후 전반적인 치아 검진을 받도록 하시고, 전문의가 괜찮다고 할때 Cornell 대학 동영상에서 가르쳐주는대로 점진적으로 고양이에게 칫솔질을 시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절대로 사람용 치약을 고양이에게 사용하지 마세요. 고양이에게는 고양이 전문 치약만 사용하도록 하세요.
- 고양이에게 적당한 칫솔을 찾는데 노력을 기울리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C.E.T. 미니 칫솔 (<http://www.amazon.com/C-E-T-Mini-Toothbrush-With-Toothpaste-Packet/dp/B000M5Q06Q> 에서 구입 가능)이 우리 고양이 칫솔질하는데 가장 적합합니다만, 일반 C.E.T. 칫솔 (http://www.amazon.com/CET-C-E-T-Mini-Toothbrush/dp/B000RI85SE/ref=sr_1_1?ie=UTF8&s=home-garden&qid=1281730041&sr=8-1 에서 구입가능)도 사용해봤는데 괜찮았습니다.
- 인내심을 가지고 천천히 진행시키도록 하십시오. 원하는 결과는 우리가 고양이에게 칫솔질 해주는 것이 일반적이고, 고통이 없고, 불쾌감이 없는 행동임을 인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양이에게 칫솔질을 처음으로 시도시, 칫솔을 고양이 이빨 근처에 몇초동안만 갖다대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할때가 많을 것입니다. 이 과정을 너무 서두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요점은 칫솔질을 꾸준히, 정기적으로 차분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칫솔질 후에서 고양이에게 애정을 보여줌으로써 보상해주세요. 많은 시간이 지난 후 고양이는 칫솔질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고양이를 잘 돌보고 싶다면요? 동물병원 전문의가 다 괜찮다고 하면 그때부터 칫솔질을 정기적으로 해주도록 해주세요.

3. 마취가 없는 치아 치료는 절대 금물입니다.



<살살 해주세요!>

제가 고양이 영양학에 대해서 관심이 지대한 것은 사실이지만, '꼭 이것만 해주세요' '다른 방법은 안됩니다'는 등 이런 '절대적인' 조언은 가급적 삼가하는 편입니다. (저 역시 애완동물 전문의가 아닌 관계로)

그리고 이런 '절대적인' 태도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뿐더러,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제가 고양이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고양이 전문의가 아니라 평범한 고양이 주인으로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에는 '절대'라는 말을 강조할 것입니다.

절대 절대, 마취없이 고양이가 치아 검진 및 치료를 받는 것은 안됩니다.

최근 '마취가 없는 고양이 치아 치료'가 무슨 유행인 것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얼핏 듣기에는 참 좋은 것입니다. 고양이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고양이를 마취하는 것에 쉽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취 말고 다른 대안이 있다면 좋겠지요. 하지만 마취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양이 치아 검진 및 치료는 효과도 없을 뿐더러 고문 및 학대를 하는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저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Brett Beckman 박사님 (미국 애완동물 치아 대학 및 미국 고통 관리 아카데미 전문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취가 없는 치아치료는 보통 애완동물 미용전문점에서 생겨난 관례로, 애완동물의 고통과는 관계없이 본인들의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런 행위는 애완동물 미용전문점에서 이제는 동물병원까지 퍼져서 더 많은 애완동물들이 학대 및 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글 맨 처음에 한 이야기를 다시 말씀드리자면, 제 고양이 월슨이 뭔가 특별이 이빨이 아프다고 티를 내서 병원에 가게 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전혀 월슨이 치아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율슨은 마취된 상태에서 의사 선생님이 잇몸에서 특별히 아픈 곳을 눌렀을 때 반사적으로 고통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만약 율슨이 마취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아픈 잇몸 부위를 누르면 얼마나 아플지 상상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마취 없는 상태에서의 치아 치료가 고양이에게 끼칠 고통은 둘째치고 (고양이가 아픈 것을 매우 잘 숨긴다는 점을 유념하도록), 마취 없는 치아 치료는 고양이에게도 동물병원 전문의에게도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도 이 말을 반복해서 지겹겠지만, 동물병원 전문의도 그냥 척 한번 보고 고양이의 치아 상태를 제대로 검진할 수 없습니다. 고양이 잇몸 표면만을 치료하고는 실제로 고양이 치아 상태를 제대로 검진할 수도 치료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치료하는 것은 마치 차 표면만 열심히 세차하고 다니고, 자동차 내부의 엔진이나 기름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자동차가 평생 잘 달리기를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고양이가 마취된 상태이라만, 전문의가 초음파의 스케일링 기계를 이용하여 고양이 치아 에나멜을 매끄럽게 하여 가급적 박테리아가 다시 고양이 치아에 들러붙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치료는 고양이가 깨어있을 경우 불가능합니다.

마취가 없는 치아 치료는 정말 고양이를 고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고양이를 사랑한다면 절대 그런 고통을 느끼도록 하지 말아주십시오. 정말 꼭 부탁드립니다.